10월의 전주, 다채로운 축제 · 행사로 가득

세계소리축제 · 비빔밥축제 · 전국체전 · 무형문화재주간
슬로포럼&어워드 · 무형유산포럼 등 대규모 축제 · 행사 개최

축제의 달 10월을 맞아 전주비빔밥축제와 제99회 전국체전 등 크고 작은 행사와 축제들이 잇달아 열리게 되면서 아시아 문화심장터인 전주가 더욱 다채로워진다.

지난 28일 전주시에 따르면, 10월 한 달간 △2018 전주비빔밥축제(25~28일)와 △전주세계소리축제 2018(3~7일) 등의 대규모 축제와 △전주세계슬로포럼&슬로어워드(24~27일) △세계무형유산포럼(25~27일)과 같은 국제포럼이 개최된다.

또한, △제99회 전국체전(12~18일) △제38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25~29일) 등 대규모 체육행사와 △무형문화재주간(8~9일) △태조어진 봉안의례(13일) △2018 한복주간 행사(15~21일), △1593 나라를 구한 전주별시(27일) 등 풍부한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한 문화행사도 펼쳐질 예정이다.

먼저, 전주비빔밥축제의 경우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전주를 대표하는 음식인 비빔밥을 주제로 한 글로벌 음식문화축제로 12회째를 맞는 올해는 오는 10월 25일부터 28일까지 나흘간 전주한옥마을과 국립무형유산원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전주비빔밥축제는 세계 최고의 독립영화제로 성장중인 전주국제영화제, 천년 전주한지의 세계화를 위한 전주한지문화축제와 함께 전주시를 대표하는 3대 문화축제다.

이와 함께, 깊어가는 가을을 맞아 행복의경제학 국제회의와 함께 글로벌 도시로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주시 3대 국제포럼으로 손꼽히는 세계무형유산포럼과 전주세계슬로포럼&슬로어워드도 열린다.

세계무형유산포럼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45명의 무형문화재를 보유하고 국립무형유산원과 아태무형유산센터가 자리잡고 있는 전주시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포럼으로, 오는 25일부터 사흘간 국립무형유산원과 전주한옥마을 일원에서 세계 각 국가와 무형유산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무형유산에 대한 보존·협력방안을 마련하는 자리로 꾸며진다.

전주 세계슬로포럼&슬로어워드는 전 세계 전문가들이 국제 도심형 슬로시티 수도인 전주에 모여 슬로시티 정책과 슬로운동의 발전을 논의하는 자리로 2회째를 맞는 올해는 오는 10월 24일과 25일 이틀간 국립무형유산원에서 느림과 작음, 간소함 등을 통해 모두가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게 된다. 여기에,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어진을 전주 경기전에 봉안하는 의례를 재현하는 태조어진 봉안의례 행렬이 오는 13일 전주시청 노송광장을 출발, 경기전까지 이어지고 조선시대 임진왜란 중 행해졌던 전주별시를 재현한 '1593 나라를 구한 전주별시'가 오는 27일 전통문화원수원 등 전주한옥마을 일대에서 펼쳐진다.

또, 무형문화재들의 솜씨를 엿볼 수 있는 무형문화재 주간 행사가 예능분야 공연은 8일과 9일 이틀간 전주소리문화관에서 펼쳐지고 기능분야 전시는 31일부터 어진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진행된다.

국내 10개 도시에서만 열리는 '2018 한복문화주간' 행사도 15일부터 21일까지 경기전 광장 등 전주시 일원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이밖에, 제99회 전국체전과 전주세계소리축제, 전라도 정도천년 기념행사, 제3회 전주시 인문주간, 2018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전주월드인라인마라톤대회 등이 열린다

시 관계자는 "축제의 달 10월 깊어가는 가을을 맞아 전주에서는 다양한 축제와 문화체육행사, 국제포럼이 열리며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전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철저한 사전준비와 점검을 통해 모든 축제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전주 아름다운 세상 우아2동 중식 봉사

전주시 정신재활시설 아름다운세상(원장 김미경)은 28일 우아2동주민센터(동장 백기욱)에서 '생명밥차'를 운영하여 우아2동 관내 이웃을 위한 중식봉사를 했다고 밝혔다.

김미경 원장에 따르면 이날 행사는 아름다운세상이 모 살림재단의 생명밥차 사업에 선정돼 우아2동 관내 독거노인 및 지역주민 약 250명을 위해 점심을 제공했다.

아름다운세상 직원 일동은 "정신질환 인식 개선을 위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봉사활동을 하고 싶었다."며 "지역사회에 소외된 이웃들이 맛있게 점심을 드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진다.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돕는 활동에 함께 참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송효철 기자

침수차량 견인 작업 지난 28일 오후 2시40분께 부안 고사포해수욕장 해상에 지프(Jeep) 차량 1대가 침수돼 해경이 견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가을 행락철 교통사고 급증

10~11월 최근 3년간 사망자 27.5명 월평균보다 8.3% ↑
화물차 · 보행 · 대형버스 사고건수가 타 유형보다 늘어
전북경찰청, 대형사고 방지 위해 내달 말까지 안전활동

가을 행락철에 교통사고 사망사고 발생 건 수가 증가한다는 통계가 나왔다.

지난 28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발생한 교통 사망사고를 분석한 결과, 10~11월 가을철 월평균 사망자는 27.5명으로 전체 월평균(25.4명) 대비 8.3% 증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화물차로 인한 사망자(+47.6%)·보행 중 사망자(+37%) 및 대형버스 사고건수(+38.5%)가 기타 사고유형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가을철 교통사고 취약요소로 분석된 3개 유형을 중심으로 행락철 대형사고 방지 및 도내 지역 축제장 교통혼잡 해소를 위하여 10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9주간 대대적인 교통안전활동을 전개 한다.

또한, 사고예방 효과 극대화를 위해 '선택과 집중'에 따른 교통안전활동을 추진한다.

먼저, 화물·전세버스 등 운수업체와 학교당국을 대상으로 경찰서장 서한문 발송과 현장 방문을 통하여 28일 부터 시행되는'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를 비롯한 각종 법규준수를 홍보 한다.

또, 운전자에서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로의 인식전환을 위한 '배려운전 3원칙(줄이고·멈추고·살피고)도 전광판·현수막·라디오 방송 등 각종 매체를 활용, 집중 홍보한다.

대상장소를 고속도로, 시내권, 시외권으로 분류, 각 특성에 맞는 안전활동도 추진한다.

먼저, 고속도로에서는 전세버스 내 음주가무행위 및 대열운행, 대형 화물차량의 끼어들기 위반 등 사고유발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톨게이트에서 고속도로 내 승객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다.

시내권에서는 보행자 안전 취약시간대인 18~20시 교통러시아워 근무를 강화, 같은 시간대 교통혼잡 상황을 틈탄 차량운전자의 신호위반, 정지선 위반, 우회전 시 보행자보호 불이행 행위 등을 집중 계도·단속한다. 혼잡한 교통 상황 속 기동성 확보를 위하여 경찰 오토바이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시외권에서는 노인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역경찰과 협업, 시골길 예방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각 지역마다 활동 중인 '내 고장 교통안전가이드'를 통한 어르신 사고예방 홍보에 힘을 쏟는다.

그 밖에, 전국체전 등 도내 주요 행사장에서 가을 행락객들과 차량으로 인한 교통 혼잡 불편이 우려됨에 따라 가용 최대 경찰인력을 동원, 지자체와 함께 불법주정차 관리 및 차량 소통관리를 강화하고 행사장 주변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불시단속도 함께 병행한다.

이석현 전북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가을철 나들이 차량 증가로 교통 혼잡 및 사고위험이 급증하는 만큼, 도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북경찰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송효철 기자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 부설 노인대학 전주시장 초청 특강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 부설 노인대학(학장 조희정)은 지난 27일 재학생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승수 전주시장을 초청 특강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시장은 이날 노인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민선7기 전주의 꿈'이라는 주제로 약 1시간 여 동안 도시재생과 미래먹거리, 국가 예산 확보 등 전주의 주요사업들에 대해 소개하고 시민들이 대한민국 어디를 가더라도 자부심을 갖도록 만들기 위한 민선7기 시정 비전들을 제시했다. /송효철 기자

무주군 공무직원, 女 샤워장 알몸 훔쳐보다 들통

사건발생 바로 직전까지 수영 가르치던 강사가 엿봐
사건발생 후 인사 조치까지 7일 걸려, 은폐 · 축소 의혹

무주군청 소속 공무직원이 수영장 내 여자샤워장을 몰래 엿보다 적발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무원 조직은 물론 무주지역이 술렁이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지난 20일 저녁 8시 20분 경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무주읍 당산리 소재 수달수영장에 근무하는 수영강사 A씨(51)가 여자 샤워장에서 알몸을 훔쳐보다 발각됐다. 피해자가 다름 아닌 사건 바로 직전까지 A씨로부터 수영을 강습 받던 여성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은 더해지고 있는 상황. 해당 수영장을 관리하는 무주군 시설사업소 측은 A씨가 수영장 관리와 수강생 강습을 담당하는 공무직원"이라고 설명했다.

모 언론의 취재에 A씨는 "수영장이 곧 끝날 시간이라 청소를 하려고 탈의실에 올라갔으며 안에 사람이 있을 줄은 몰랐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평소 수영장을 이용하는 주민과 시설사업소 관계자의 말은 달랐다.

주민들에 따르면 "수영장 청소는 별도의 청소요원이 있어 평상시에도 계속 이들이 담당해 왔지 수영강사인 A씨가 청소한 경우는 없었다"라며 "고의성이 없는 한 여자 샤워장 쪽은 전혀 갈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사건의 당사자인 A씨는 소속돼 있던 시설사업소에서 직위해제된 후 지난 27일 무주군청 자치행정과로 대기발령을 받은 상태이며, 사건에 대해서는 무주군은 감사에, 무주경찰은 수사에 각각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사건발생으로부터 조치까지 7일 이상의 시간이 지체된 데에는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의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추석 연휴가 끼어 있었던 시기적 특수성이 있기는 하나 사안의 무게감으로 볼 때 보다 신속한 보고체계와 대책마련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여 지기 때문이다.

소식을 접한 주민 K씨(55·무주읍)는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공직기강 확립과 군 조직 정비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군청 조직원들의 일탈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와 과실의 대소를 불문하고 엄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도내 학폭사범 하루 1.1명'

이재정 의원, "경찰 · 학교 협조체계 구축 학교폭력 발생 잦은 곳에 대책 마련해야"

전북지역의 학교 폭력이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이후 학교폭력사범 적발 및 조치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 동안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사범은 1899명이었다.

하루 평균 1.1명 이상 발생한 것이다.

더구나 2014년 467명, 2015년 445명, 2016년 313명, 지난해 454명, 올해 6월말 기준 220명으로 2016년을 제외하고는 줄지 않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경찰과 학교 간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학교폭력사범 발생이 잦은 지역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의원은 "학교폭력의 수위와 기법이 날로 흉폭해지고 있는 만큼 학교폭력 철폐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경찰당국은 학교 측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지역별 학교폭력 유형과 특색을 고려한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전북지방경찰청은 올해 3월부터 2개월 동안 학교폭력 집중관리 기간을 운영했다. /뉴시스

중앙동 환경미화원 소통 간담회

전주시 중앙동주민센터는 지난 27일 환경미화원 14명을 초대해 오찬을 함께했다고 밝혔다.

중앙동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는 청소대행업체 ㈜서희산업 소속 환경미화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이들의 노고에 대해 격려하고 불법 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태평1구역 주택재개발지역에 방치된 쓰레기 해소를 위해 일선 현장 근무자들의 의견과 대책을 논의 하고자 마련한 자리다.

현재 이 지역은 재개발 지역으로 아직 이전하지 않은 37세대가 거주중에 있으나 군데군데 무단 투기된 쓰레기로 도시미관을 해치고 소수 미이주자들이 불편을 겪고있는 실정이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무단 투기 단속을 위한 CCTV 추가 설치, 통제라인 설치, 재개발 정비사업의 조속한 추진 완료 등의 다양한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 할 수 있었다. /송효철 기자

가을 오송제에서 만나는 식물의 번식전략

전주시립 건지도서관, 6일 '가족행복 도서관의 날' 숲 탐방
숲 생태 해설가와 함께 거닐며 번식 방법 등 배울 수 있어

생태 특화도서관인 전주시립 건지도서관이 가을을 맞아 가족단위 시민들을 위한 숲 탐방 행사를 연다.

건지도서관은 오는 10월 6일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가족 행복 도서관의 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가을 오송제에서 만나는 식물의 번식전략 이야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민들을 위한 가족 숲 탐방 행사를 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탐방행사는 최현숙 숲 생태 해설가와 함께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오송제를 함께 거닐며 △바람에 날려 번식하는 식물 △동물이나 사람의 몸에 붙어서 이동하는 식물 △튀기, 먹히기 등 다양한 식물의 번식전략 및 씨앗의 번식방법 등에 대해 직접 보고 듣고 느끼는 시간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전주시 덕진구 권역의 송천·금암·인후·아중·쪽구름·건지도서관 등 6개 도서관은 올해 매월 첫째 주 토요일마다 온 가족이 함께 참여 할 수 있는 '가족 행복 도서관'의 날을 순회하며 운영하고 있다.

또한, 오는 11월 10일에는 쪽구름 도서관에서 특화 주제인 스포츠를 연계한 '가족 요가 프로그램'으로 '가족 행복 도서관'의 날이 운영될 예정이다.

전주시립도서관 관계자는 "올해 처음 실시된 '가족 행복 도서관의 날'은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느끼게 해줌으로써 참여자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며"서로의 일상에 지쳐 있는 가족들이 함께 참여해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만큼, 앞으로 남은 프로그램에도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가족 행복 도서관'의 날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립도서관 홈페이지(lib.jeonju.go.kr)를 참고하거나, 해당 도서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송효철 기자

고향사람 등친 30대 경찰 조사

고향 사람들에게 차량을 싼 가격에 빌려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30대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장수경찰서는 지난 28일 사기 등 혐의로 A(3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장수군의 한 마을 주민 13명으로부터 차량 보증금 명목으로 2억3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뉴시스